

현안과 과제

■ 규제와 경제성장

- OECD수준 상품시장규제 개혁時 성장률 0.3%p 향상

< 규제와 경제성장 : OECD수준 상품시장규제 개혁時 성장률 0.3%p 향상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4.6%였으나, 위기 이후(2008~2013년) 3.5% 수준으로 급락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3년에는 25위까지 하락했다. OECD는 기업의 활동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상품시장규제, PMR)지수를 통해, 주로 어떤 분야의 규제가 문제인지, 규제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한국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6점 만점에 2013년 1.88점으로 1998년(2.49점)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OECD 회원국들과의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짐에 따라 상대적 순위는 1998년 5위에서 2013년 2위로 더 올라갔다. 그리고 3가지 분야별로 보면, 특히 '무역투자 장벽' 관련 규제지수가 1.30(1위)으로서, OECD회원국 중 규제가 가장 강했다. 그리고 '정부의 통제'는 1998년 15위에서 2013년 5위로, '기업 활동에의 장벽' 역시 1998년 15위에서 2013년 7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여, 우리나라 규제 순위가 2위로 올라가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7가지 세부 지표별로 보면, '기업경영에의 간섭' 관련 PMR 지수가 2.28(3위)로서 OECD평균 1.58에 비해 크게 높았고, 진입장벽 등을 통한 '기득권 보호' 관련 PMR 지수도 1.76(2위)으로 OECD평균 1.25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관세와 FDI 규제 등 '공개된 무역투자 장벽' 관련 PMR 지수가 1.68(1위)로서 OECD 평균(0.2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위의 정성적 분석에 더해서, 규제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분석을 추가해 보았다. Barro (1991)의 경제성장 모델에 기초한 Wölfl, A. et al.(2010)의 모델을 응용해서,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상품시장 규제(PMR)는 1인당 GDP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MR 규제가 OECD평균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013년도에 명목기준으로 0.3%p 추가로 상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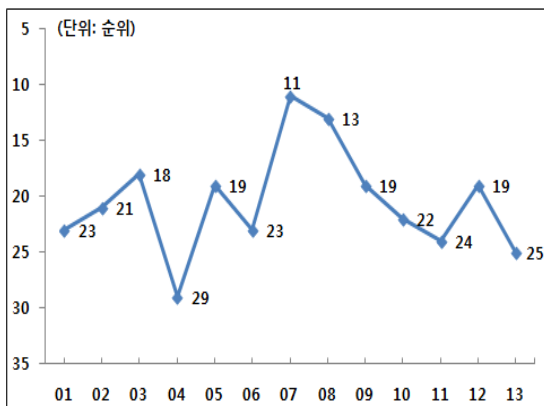
또한, 7가지 세부 지표를 대입하여 계량분석을 해본 결과, '기업경영에의 간섭', '기득권 보호', '공개적 무역투자 장벽' 등 3가지 지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성장(1인당 GDP 증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의 정성적 분석 결과와 계량분석 결과가 다르지 않으며, 향후 정부가 어느 분야의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하락추세에 있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가격통제 등 기업경영 관련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서비스업종에의 진입 장벽과 기득권 보호를 최소화하며, 관세 장벽과 FDI 규제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등 국내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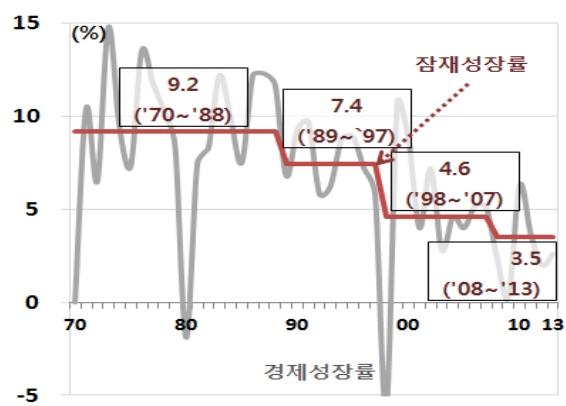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도 하락 추세에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1년 23위에서 2007년 11위까지 상승 추세에 있었으나,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3년에는 25위¹⁾까지 내려옴
 - 제도적 요인 74위, 규제의 부담 95위²⁾, 규제 관련 법체계의 효율성 101위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4.6%였으나, 위기 이후(2008~2013년) 3.5% 수준으로 급락함
 - 규제와 국가경쟁력, 경제성장은 상관성이 높으며, 특히 기업 활동 및 경쟁촉진 관련 규제가 국가경쟁력과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³⁾가 다수 존재
- 기업 활동 및 경쟁촉진과 관련된 규제의 국제비교를 통해 주로 어떤 규제가 문제인지, 규제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함
 - OECD는 기업 활동 및 경쟁촉진과 관련된 규제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품시장 규제(PMR) 지수⁴⁾를 1998년부터 5년마다 발표하고 있음
 - 규제(PMR) 수준의 국제비교를 통해 주로 어떤 분야의 규제가 문제인지 알아보고,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계량 분석을 시도함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이>



자료 : 세계경제포럼(W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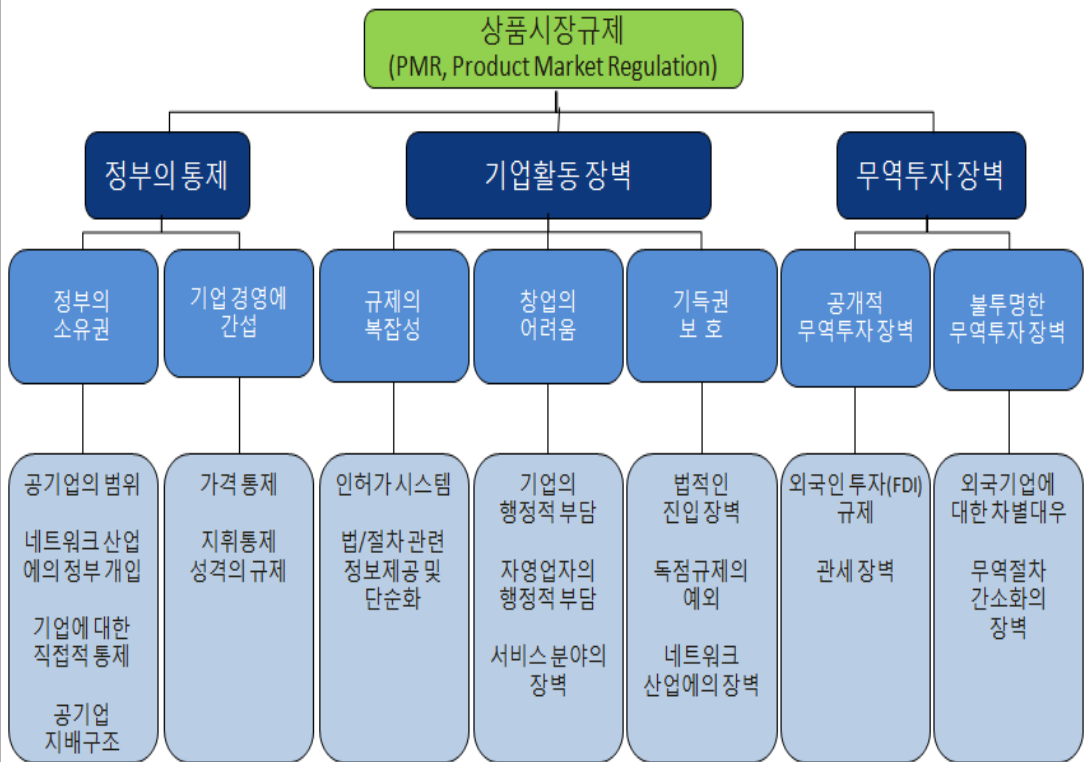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⁵⁾

1)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2013년 22위에 머물렀고, 기업관련 법규의 경쟁력은 39위로 매우 낮은 수준.
 2) 우리나라의 등록규제는 MB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3) 최진욱(2006), KDI(2005), KIET(2005), KIET(1999), van Stel et al.(2004), Johnson et al.(1998), Koedijk & Kremers(1996), Peltzman(1976) 등.
 4) 상품시장규제(PMR)의 구성 등 자세한 소개는 2쪽 <참고> 박스 참조.
 5) 현대경제연구원(2014), “2014년 한국 경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복원에 주력해야 한다.”, VIP REPORT, 14-1(통권 552호).

<참고> 상품시장규제(PMR)⁶⁾ 지수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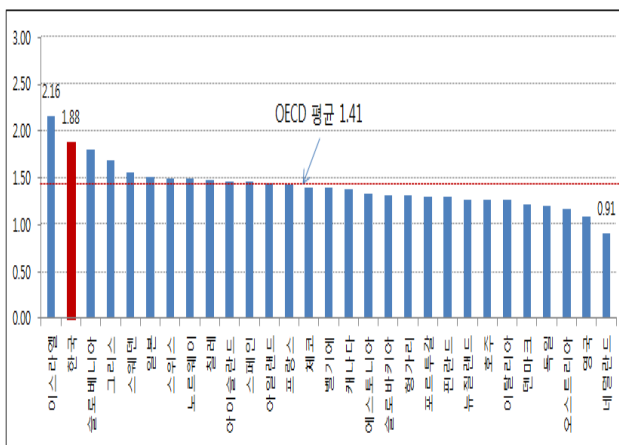
- 1998년 이후 5년 마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실시
 - (예) '창업의 어려움' 관련 PMR 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창업時 이러한 절차가 미리 이루어져야 하나요?” 예/아니오
 - 1998년 25개국, 2003년 26개국, 2008년 30개국, 2013년 29개국
 - 2013년은 미국의 조사 결과 누락됨
- 6점 만점이며 점수가 클수록,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의 강도가 강함
 - 0점으로 낮아질수록 규제가 약함
 - 6점으로 높아질수록 규제가 강함

6) 우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www.better.go.kr)에서는 규제를 크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는데, OECD의 상품시장규제(PMR)는 주로 경제적 규제와 관련되어 있음. 한편, 세계 각국의 '경제적 자유도'를 발표하는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에서는 경제적 규제를 다시 자본시장규제, 노동시장규제, 기업규제로 세분화하기도 함.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전체의 규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규제'에 한정해서 그 중에서도 '기업규제'와 관련된 상품시장규제(PMR)를 비교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람.

2. 규제의 국제비교 : 시장규제의 개혁 경쟁에서 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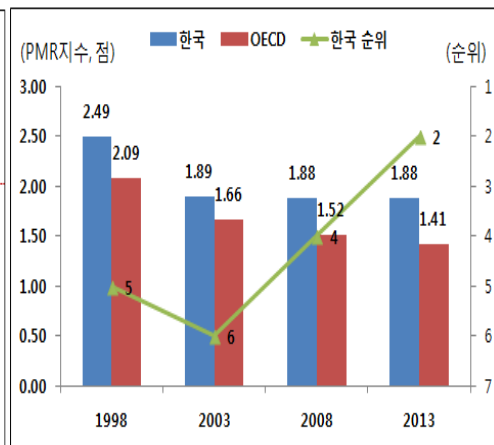
- (연도별) 상품시장규제(PMR)⁷⁾는 개선되어 절대치는 내려갔지만,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지면서 국가순위는 1998년 5위에서 2013년 2위로 올라감
 - 2013년 현재 OECD 국가 중 상품시장규제(PMR)는 이스라엘이 가장 높고, 한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2번째로 높게 나타남
 - 한국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2013년 현재 1.88로서 OECD 평균(1.41)보다 높게 나타남
 - 이스라엘이 2.16(1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일본은 1.51(6위), 독일은 1.21(26위), 영국은 1.09(28위), 네덜란드는 0.91(29위)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한국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절대값은 1998년 2.49에서 2013년 1.88로 하락하면서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OECD 회원국들과의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짐에 따라 상대적 순위는 1998년 5위에서 2013년 2위로 더 올라가고 있음
 - OECD평균 : 1998년 2.09 ⇒ 2003년 1.66 ⇒ 2008년 1.52 ⇒ 2013년 1.41
 - 한국: 1998년 2.49(5위)⇒ 2003년 1.89(6위)⇒ 2008년 1.88(4위)⇒ 2013년 1.88(2위)
- ※ PMR 지수가 클수록 규제가 강하며, 순위가 높을수록 상대적 규제가 더 강함

<국가별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자료 : OECD (PMR Index)
 주 : 1) 0=가장 약한 규제, 6=가장 강한 규제
 2) 2013년 기준

<연도별 PMR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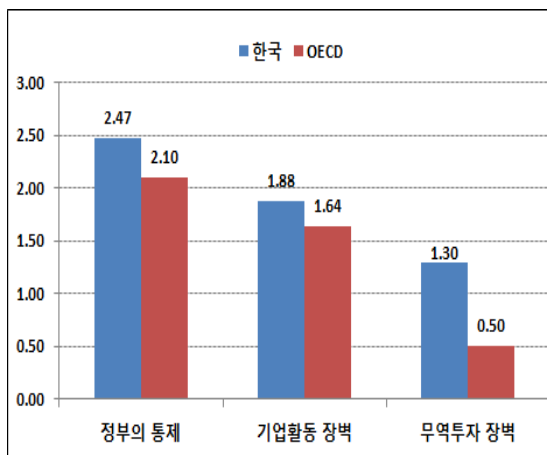


자료 : OECD (PMR Index)
 주 : 1) 0=가장 약한 규제, 6=가장 강한 규제
 2) 순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함

7) OECD가 5년마다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PMR) 지수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안된 지표로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수화하며, 0 점은 규제가 없는 상태, 6점 만점은 규제가 가장 강한 상태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함을 의미. 1998년 처음 개발된 이래 5년마다(1998, 2003, 2008, 2013)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 결과가 2014년 4월 발표된 바 있음. PMR 지수의 구성과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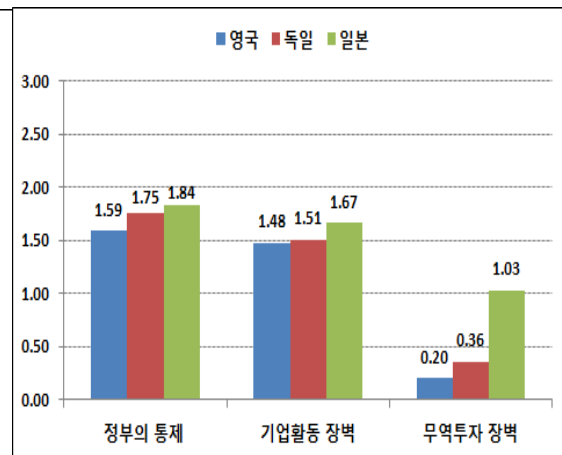
- (3가지 분야별)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를 3가지 분야별로 나눠보면, '무역투자 장벽'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정부의 통제'와 '기업활동 장벽' 분야의 상대적 순위도 최근 급등했음
 - 한국의 PMR 지수를 분야별로 세분해서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모든 분야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특히 '무역투자 장벽'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
 - 한국의 '무역투자 장벽' 관련 PMR 지수는 1.30(1위)으로 OECD평균(0.5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강한 규제로 평가됨
 - '정부의 통제'와 '기업활동 장벽' 관련 규제 순위의 급등이 우리나라 규제 순위의 상승에 크게 기여했음
 - 정부의 통제 : 15위('98년)⇒ 16위('03년)⇒ 8위('08년)⇒ 5위('13년)
 - 기업활동 장벽 : 15위('98년)⇒ 7위('03년)⇒ 9위('08년)⇒ 7위('13년)
 - 무역투자 장벽⁸⁾ : 1위('98년)⇒ 2위('03년)⇒ 1위('08년)⇒ 1위('13년)
 - OECD 주요국의 PMR 지수를 분야별로 보면, 일본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규제수준이 높지만, 특히 무역투자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영국과 독일⁹⁾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품시장규제(PMR) 수준이 매우 낮음
 - 영국과 독일은 특히 '무역투자 장벽'이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음

<한국의 분야별 PMR 지수>



자료 : OECD (PMR Index)
 주 : 1) 0=가장 약한 규제, 6=가장 강한 규제
 2) 2013년 기준

<주요국의 분야별 PMR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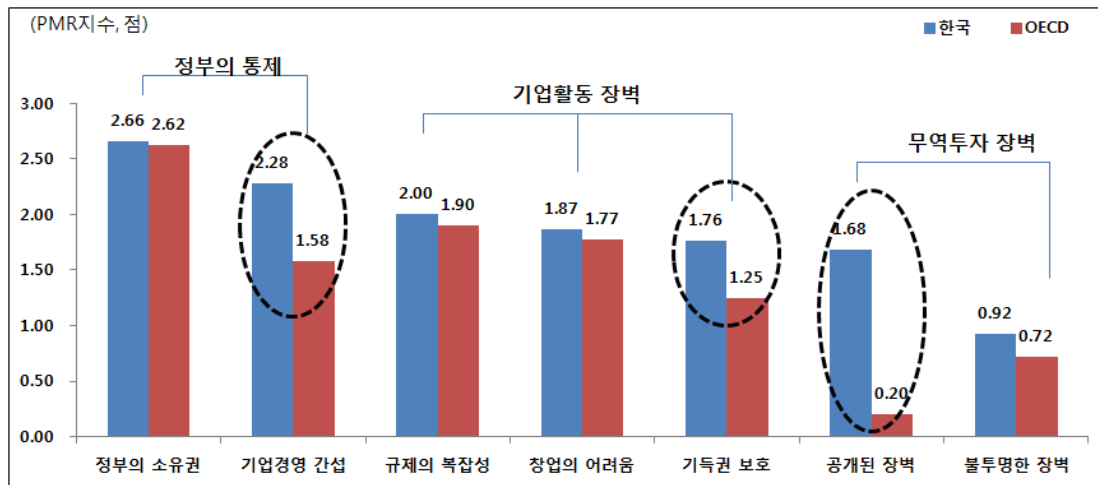


자료 : OECD (PMR Index)
 주 : 1) 0=가장 약한 규제, 6=가장 강한 규제
 2) 2013년 기준

8) 세계무역기구(WTO)의 국가별 평균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rates)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6.07%(2012년)로서, 미국 2.38%(2011년), EU 2.37%(2011년), 일본 1.37%(2012년) 등에 비해 크게 높은 편임.
 9) 독일의 경우에는 PMR 지수 순위가 1998년 12위, 2003년 11위, 2008년 25위, 2013년 26위로 계속 낮아져, 최근 들어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음.

- (7가지 지표별)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를 구성하는 7가지 세부 지표별로 보면, ‘기업경영에의 간섭’, 진입장벽 등을 통한 ‘기득권 보호’, 관세 등 ‘공개된 무역투자 장벽’ 3가지 지표가 특히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 ‘정부의 통제’는 ‘정부의 소유권’과 ‘기업경영에의 간섭’으로 세분화되는데, 특히 ‘기업경영에의 간섭’¹⁰⁾은 2.28(3위)로서 OECD평균(1.58)에 비해 높은 수준
 - ‘기업경영에의 간섭’은 1998년 9위, 2003년 7위, 2008년 7위, 2013년 3위로서 최근에 순위가 크게 상승
 - ‘기업활동에의 장벽’은 ‘규제의 복잡성’, ‘창업의 어려움’, ‘기득권 보호’ 3가지로 구성되는데, ‘기득권 보호’¹¹⁾ 지수는 1.76(2위)으로 OECD평균 1.25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것이 ‘기업활동 장벽’의 순위를 높이는데 많은 영향을 줌
 - ‘기득권 보호’는 1998년 3위, 2003년 1위, 2008년 3위, 2013년 2위로서 매우 높은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무역투자 장벽’은 ‘공개된 무역투자 장벽’과 ‘불투명한 무역투자 장벽’으로 세분화되는데, 관세와 FDI규제 등 ‘공개된 장벽’이 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공개된 무역투자 장벽’¹²⁾ 관련 PMR 지수는 1.68(1위)로서 OECD 평균(0.20)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계속해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 PMR 지수를 구성하는 7가지 세부지표 비교 >



자료 : OECD (PMR Index)

10) ‘기업경영에의 간섭’은 ‘가격 통제’와 ‘지휘통제 성격의 규제(command & control regulation)’로 구성됨.
 11) ‘기득권 보호’는 ‘진입 장벽’, ‘독과점 규제의 예외’, ‘통신 전력 등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장벽’으로 구성됨.
 12) ‘공개된 무역투자 장벽’은 ‘FDI(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관세 장벽’으로 구성됨.

3.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선행연구)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연구는 경제성장 모형을 기초로 해서 분석되고 있음
 - 규제 지수를 독립변수로 이용하고, 1인당 GDP 증가율 또는 국가 경쟁력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규제가 경제성장 및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분석되었음
 -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은 성장 모형을 활용해 규제가 1인당 GDP 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분석방법도 최소자승법 및 GMM 등을 활용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규제와 경제성장’ 관련 주요 선행연구 요약 >

연구자	종속변수	규제지수	분석방법
IMF (2004)	1인당 GDP 증가율	경제 구조 개혁 지수(Structural policy indicators)를 금융(financial), 상품(product), 무역(trade), 노동시장(labor), 조세(tax)로 구분하여 지수를 만들어서 분석	GMM (일반적률추정법)
Norman et al. (World Bank. 2005)	1인당 GDP 증가율	기업환경지수(World Bank), 경제자유도 지수(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도(프레이저 연구소), 노동시장지표 DB(M. Rama and R. Artecona, 2000), 법인세율 조사(KPMG), 국가별 위험도(Country Risk)조사(The PRS Group) 등 활용	최소자승법
최진욱 (2006)	IMD 국가경쟁력 지수	경제자유도 조사(프레이저 연구소) 중 규제지수 자료를 활용	횡단면 회귀분석
Wölfl, A. et al. (OECD. 2010)	1인당 GDP 증가율	OECD의 PMR 지수	Bayesian Model Averaging 기법활용 종단 및 패널 분석
산업연구원 (2012)	1인당 GDP 증가율	IMD의 규제지수	최소자승법
이중환 & 최진식 (2012)	1인당 GDP 증가율	OECD의 PMR 지수	동태 패널데이터 모형을 활용한 GMM

- (분석 결과1) 상품시장규제(PMR)는 '1인당 GDP 증가'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PMR 지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면 2013년의 경제성장률은 0.3%p 추가로 상승할 수 있었을 것임
-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니, 상품시장규제(PMR)가 강할수록 '1인당 GDP 증가'에 음(-)의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성장의 규제탄력성을 계산하여 추정한 결과, 우리의 PMR 규제 수준이 OECD평균 수준으로 낮아졌다면, 2013년 우리의 경제성장률(명목GDP기준)은 0.3%p 추가 상승할 수 있었을 것임¹³⁾ (※ 별첨 1의 표 참조)

○ 상품시장규제(PMR)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¹⁴⁾

- Barro (1991)의 경제성장 모델에 기초한 Wöfl, A. et al.(2010)의 모델을 이용하여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추정¹⁵⁾

$$y = \alpha_0 + \alpha_1 \text{상품시장규제} + \alpha_2 \text{인구} + \alpha_3 \ln \text{투자} + \alpha_4 \ln \text{정부지출} + \alpha_5 \ln \text{일인당}gdp_{-1} + \epsilon_t$$

< 분석자료 내역 >

변수명	변수 설명	자료 출처
y	1인당 GDP 증가율(\$US, current prices)	OECD
상품시장규제	PMR 지수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OECD
인구	인구성장률	OECD
ln투자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의 로그값	OECD
ln정부지출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의 로그값	OECD
ln일인당GDP ₋₁	1인당 GDP의 로그값의 lag 변수를 나타냄	OECD

13) '0.3%p의 추가 상승'은 탄력성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한 것인데, 이 탄력성은 분석결과의 상품시장규제 계수 값을 활용해서 산출함. 한국은행 국민계정(2010년 기준)에 따르면, 달러 기준 1인당 명목GDP 증가율은 2013년 6.2%를 기록했으며, 달러 기준 경제 전체의 명목GDP 증가율은 2013년 6.7%를 기록함.

14)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서 OECD 국가 중 터키, 멕시코, 룩셈부르크, 폴란드를 제외한 30개국 대상으로 1998, 2003, 2008, 2013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샘플이 선진국에 한정되어 있는 제약이 있음. 국가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별 고정효과(fixed effect) 모델을 이용해서 추정함.

15) Wöfl, A. et al. (2010). "Product market regulation: extending the analysis beyond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Barro R (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407-443. "World Economic Outlook : Advancing Structural Reform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search Dept., April 2004.

- (분석 결과 2)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의 7가지 세부 지표 가운데 ‘기업 경영 간섭’, ‘기득권 보호’, ‘공개적 무역투자 장벽’ 등 3가지 지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인당 GDP 증가’에 음(-)의 영향을 미침¹⁶⁾
 - 7가지 세부 지표를 대입하여 계량분석을 해본 결과, ‘기업경영 간섭’, ‘기득권 보호’, ‘공개적 무역투자 장벽’ 등 3가지 지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인당 GDP 증가에 음(-)의 영향을 미침¹⁷⁾ (※ 별첨 2의 표 참조)
 -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투자 장벽이 경제성장(1인당 GDP 증가율)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4. 시사점

- 우리나라 상품시장규제(PMR)의 개선 속도를 더 높임으로써, 하락추세에 있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가격 통제 및 진입 장벽을 개선하고 무역투자 장벽을 낮춤으로써 PMR 지수를 개선할 여지가 크며, 이는 국가경쟁력과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것
 - 가격 통제와 관련된 ‘기업경영에의 간섭’, 진입 장벽과 관련된 ‘기득권 보호’ 등의 PMR 지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또한, FDI 규제, 관세장벽 등 ‘공개적 무역투자 장벽’ 관련 PMR 지수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국가별 평균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rates)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6.07%(2012년)로서, 미국 2.38%(2011년), EU 2.37%(2011년), 일본 1.37%(2012년) 등에 비해 크게 높은 편임

16) 앞장의 추정 모델(Barro (1991)의 경제 성장 모델에 기초한 Wöfl, A. et al.(2010)의 추정 모델)에서 상품 규제(PMR)지수 대신 상품 규제 지수를 구성하는 일곱 가지 세 분류의 요소인 정부의 소유권, 기업경영 간섭, 규제의 복잡성, 창업의 어려움, 기득권 보호, 공개적 무역투자 장벽, 불투명한 무역투자 장벽 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모델을 추정함으로써 각각의 규제 요소가 1인당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17)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 Advancing Structural Reforms” 분석 모형에서 구조 개혁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IMF는 개혁을 나타내는 지수(Structural policy indicators)를 금융(financial), 상품(product), 무역(trade), 노동시장(labor), 조세(tax)로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함. 분석 결과는 금융과 무역 부분의 개혁이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실질 일인당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역투자 장벽을 더 낮춤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확대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경쟁의 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대 국가들을 더 늘리고, 관세와 FDI 규제를 낮춤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금융 서비스, 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외국인 소유 지분제한에 대해서도 서비스 산업의 세부 업종별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에 맞게 재정비 할 필요가 있음¹⁸⁾

- 기업 경영과 관련된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가격 통제와 지휘통제 성격의 규제 등 ‘기업경영에의 간섭’ 관련 PMR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예를 들면, MB정부 초기에 ‘MB물가’ 품목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했지만 ‘MB물가’ 품목의 물가지수가 더 급등했던 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통제는 최소화해야 함
 - ‘진입장벽’과 ‘독점규제 예외’ 등 ‘기득권 보호’ 관련 PMR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예를 들면, 1996년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를 기존 2개에서 5개로 대폭 늘려 경쟁을 촉진함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물론 삼성, LG 등 휴대폰 제조업체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던 성공 사례를 참조
 - 교육, 법률, 회계,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 필요

김동열 정책연구실장 (2072-6213, dykim@hri.co.kr)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18) 현대경제연구원,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국제 비교와 시사점”, 현안과 과제 13-56, 2013.11.29.

<별첨 1> 추정 결과(1)

	상수항	상품시장규제	1인당gdp ₋₁	인구	투자	정부지출
계수	12.04	-0.66	-0.61	-0.76	1.36	-0.80
t-값	5.03***	-3.16***	-5.06***	-0.43	4.61***	-1.33

주 : 1) ***, **는 각각 1% 수준과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나라별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
 3) 클러스터-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이용¹⁹⁾.

<별첨 2> 추정 결과(2)

	상수항	상품시장규제 (7가지 세부 지표)							1인당 gdp ₋₁	인구	투자	정부 지출
		정부의 소유권	기업 경영 간섭	규제의 복잡성	창업의 어려움	기득권 보호	공개적 무역 투자 장벽	불투명 무역 투자 장벽				
계수	17.10	0.08	-0.28	-0.09	-0.28	-0.53	-0.88	0.27	-1.13	0.28	0.97	-0.66
t-값	7.01***	1.15	-3.17***	-1.24	-1.32	-2.98***	-2.72***	1.39	-4.81***	0.17	3.55***	-1.19

주 : 1) ***, **는 각각 1% 수준과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나라별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
 3) 클러스터-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이용²⁰⁾.
 4) 조건지표(condition number)를 통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²¹⁾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

19) 위의 추정 모델처럼 국가 패널의 경우, 오차항(error term)이 국가별로(within panel) 이분산(heterogeneous)일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나라별로 클러스터-강건 표준오차(cluster robust standard errors)를 계산함.

20)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패널의 경우, 오차항(error term)이 국가별로(within panel) 이분산(heterogeneous)일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나라별로 클러스터-강건 표준오차(cluster robust standard errors)를 계산함.

21)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이하 VIF) 및 조건지표(condition number)를 확인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 유무를 판단하는데 여기서는 조건지표를 활용함 (VIF는 OLS 모델 추정 후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고정효과 모델에서는 적합하지 않음).

< 참고자료 >

1. Loayza, Norman and Ana Maria Oviedo and Servén, Luis (2005). "The Impact of Regulation on Growth and Informality Cross-Country Evide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623.
2. Wölfl, A. et al. (2010). "Product market regulation: extending the analysis beyond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3. Barro R (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p. 407-443.
4. "World Economic Outlook : Advancing Structural Reform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search Dept., April 2004.
5. 이종한 & 최진식 (2012).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OECD 국가의 생산물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6. 최진욱 (2006).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 15권 제1호.
7. 현대경제연구원(2013),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국제 비교와 시사점", 현안과 과제 13-56, 2013.11.29
8. 현대경제연구원(2014),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4-14, 2014.3.19
9. 현대경제연구원(2014), "2014년 한국 경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복원에 주력해야 한다.", VIP REPORT, 14-1(통권 552호)